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2. 11. 24.(목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: 732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3명)

- 프로그램명 : 「아침마당」 ‘목요특강 4인 4쌍 - 골(骨)든타임’
- 방송일시 : 2022. 11. 24.(목) 1TV (08:25-09:30)

본인은 시각장애인 시청자이다.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고민이 컸는데, 이날 1교시에 진동규 신경외과 교수가 출연해 ‘노화로 찾아오는 척추 질환’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를 들려주어 큰 도움이 됐다. 그밖에도 ‘겨울철 발목 골절 주의보’라는 주제로 진행된 3교시 강의도 유익했다. 목요일마다 전문가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콘셉트가 좋다.

○ 출연자 섭외 제언(14명)

- 프로그램명 : 「사사건건」 ‘여의도 사사건건’
- 방송일시 : 2022. 11. 23.(수) 1TV (16:00-17:00)

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“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할지 몰랐다.” 등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데, 야당 측 패널만 출연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. 여야 비율을 맞춰 섭외해 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없음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732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379	54	-	-	299	732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10	243	8	-	-	171	732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03	629	-	732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515	6	101	110	732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2022 FIFA 카타르 월드컵」 - 편성 제언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사건건」 - 출연자 섭외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생로병사의 비밀」 - 방송 호평 ○ 「아침마당」 - 방송 호평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가요무대」 - 시청자 참여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음악실」 - 홈페이지 제언 ○ 「노래의 날개 위에」 - 방송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감귤 문의’ 연락처 문의 40건 ○ 「2022 FIFA 카타르 월드컵」 - ‘편성 시간’ 문의 20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마아리호떡’ 연락처 문의 15건 ○ 「생활의 발견 스페셜」 - ‘계장백반 무한 리필’ 연락처 문의 12건 ○ 「아침마당」 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12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5건 ○ 「수신기술」 문의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38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31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5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4건 ○ 「주차」 문의 2건 외 1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110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제언	<p>○ 「2022 FIFA 카타르 월드컵」 ‘모로코:크로아티아’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. 11. 23.(수) KBS(온라인) - 이날 카타르 알코르에 위치한 알 바이트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열렸다. KBS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기에 해당 경기도 중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, 온라인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어 답답했다. 고령층 시청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월드컵 시청이 어려우니, 채널이 2개 있는 KBS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경기를 중계해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보 도]	
출연자 섭외 제언	<p>○ 「사사건건」 ‘여의도 사사건건’(1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. 11. 23.(수) 1TV (16:00-17:00) -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“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할지 몰랐다.” 등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데, 야당 측 패널만 출연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. 여야 비율을 맞춰 섭외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시사 · 교양]	
방송 호평	<p>○ 「생로병사의 비밀」 ‘병을 부르는 식습관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. 11. 23.(수) 1TV (22:00-22:50) - ‘병을 부르는 식습관’을 주제로, 잘못된 식습관을 살펴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. 음식 섭취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된 음식 섭취는 오히려 몸을 위협하는데, 이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상세히 다뤄 주어 유익했다.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좋은 방송을 제작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아침마당」 ‘목요특강 4인 4썸 - 골(骨)든타임’(3명)</p> <p>- 2022. 11. 24.(목) 1TV (08:25-09:30)</p> <p>- 본인은 시각장애인 시청자이다.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고민이 컸는데, 이날 1교시에 진동규 신경외과 교수가 출연해 ‘노화로 찾아오는 척추 질환’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를 들려주어 큰 도움이 됐다. 그밖에도 ‘겨울철 발목 골절 주의보’라는 주제로 진행된 3교시 강의도 유익했다. 목요일마다 전문가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콘셉트가 좋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연예·오락]	
시청자 참여 제언	<p>○ 「가요무대」</p> <p>- 1TV (월) (22:00-22:55)</p> <p>- 고령의 시청자로, 매주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큰 위안을 얻고 있다. 꼭 한 번 방청하고 싶은데, 본인은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일부부터가 난관이다. 방청신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져 안타깝다. 남녀노소가 시청하는 공영방송이므로 방청신청의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해주기 바란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라디오]	
홈페이지 제언	<p>○ 「KBS 음악실」</p> <p>- 2022. 11. 22.(화) 1FM (11:00-12:00)</p> <p>-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. 혹여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KBS 홈페이지의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, 22일자 방송을 다시듣기 하니 「이현우의 음악앨범」이 나와 당황스러웠다. 청취자들이 22일자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빠른 수정을 요청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노래의 날개 위에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. 11. 23.(수) 1FM (16:00-17:00) - 성악곡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. 지친 오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. 진행자의 차분한 진행과 함께 오후 시간대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이 듣는 재미를 더한다.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